

켄텍, 첫 정규 졸업생 배출...에너지 인재 양성 본궤도

학사 등 41명 학위 수여...자교 대학원 진학 90% 육박 학부연구생 제도·전폭적 지원 바탕 연구중심 모델 안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2022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며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의 본궤도에 올랐다.

학부 졸업생 대부분이 자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면서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연구 인재 파이프라인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한국에너지공과대는 지난달 2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6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명, 석사 10명, 1기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 등 총 4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행사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호 국회의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졸업생의 진로 선택이다. 1기 학사 졸업생 30명 가운데 28명이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고, 이 중 27명은 자교 대학원에 진학해 에너지 분야 연구를 이어간다.

1명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2명은 진로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조기 졸업생 5명 중 3명 역시 자교 대학원을 택한 바 있어, 자교 진학 비율은 90%를 웃돈다.

이는 단순한 진학률 이상의 의미다. 에너지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 그리

드, 수소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원자핵 에너지 등 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학원 연구 체계가 학부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설립 초기부터 강조해온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켄텍은 학부연구생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재학 중부터 연구실에 소속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왔다. 상당수 졸업생은 학부 시절 수행하던 연구를 동일 연구실에서 이어가며 심화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안정적인 연구 여건도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등록금 지원과 생활지원비, 연구·학습 기자재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연구와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수석 졸업한 김수홍씨는 "1기로 입학한 만큼 학교의 성장 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다"며 "연구 역량을 키워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교수형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첫 정규 졸업생 배출은 켄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부에서 시작한 연구 경험이 대학원 심화 연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해 글로벌 에너지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한국에너지공과대는 지난 2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6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명, 석사 10명, 1기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 등 총 4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한전, 236개 협력사 안전역량 끌어올렸다

고용부·산업안전공단 주관 상생협력 평가 우수기업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대기업이 안전관리 기술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15개 전 지역본부가 참여해 236개 협력업체를 지원하며 참여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 기법 점수 및 실행력 향상 컨설팅' 등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 상생협력체 운영 등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전 강원본부와 경남본부가 우수기업(사업장)으로 선정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한전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법적의무가 없는 총공비비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을 확대했으며,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전강화비' 제도를 신설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애니메이션, 북미 시장 진출 속도낸다

콘진원, 美 키즈스크린서 1억2193만달러 상담 성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Kidscreen Summit 2026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총 1억 2193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4.2% 증가한 수치로, 환율 1424원 기준 약 173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키즈스크린 서밋은 북미 최대 아동·청소년 콘텐츠 마켓이다. 올해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1000여명의 산업 관계자와 250여명의 핵심 바이어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방송사와 제작사, 배급사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K-애니메이션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콘진원은 로커스, 키즈캐슬, 로이비주얼, 더빙코리아 등 국내 애니메이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Kidscreen Summit 2026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총 1억2193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비즈매칭과 현장 상담 공간을 지원했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와의 실질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나흘간 총 33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단순한 접촉을 넘어 스피드 피칭 세션과 전문가 강연,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투자·공동제작·배급

협의 등 구체적인 의뢰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알리몰리스튜디오는 미국 애니메이션 배급사 Kabilion과 애니메이션 '아스트로스테이션'의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상담 중심의 성과를 넘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며 K-애니메이션의 북미 유통망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

광주-전남창경센터, 로컬기업 성장 '맞손'

호남권역 주관기관 선정...2028년까지 브랜드 창출 등 지원

광주·전남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로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다.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로컬창업기업 육성 사업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로컬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별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춘 로컬창업 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기조에 맞춰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로컬창업 생태계를 이끌 전망이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최대 3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청년 예비창업자 교육부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 브랜드 창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로컬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에 최종적으로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전남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 창업자와 지역 상권을 긴밀히 연계해 로컬창업자의 브랜드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젊은 층과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안창주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범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전남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호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기업이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i@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광주 롯데호텔(구 라마다상무호텔)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l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아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드라마> 공저자
--	--	---	---	---	--

